

## 카자흐스탄 한인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

김 게르만\*\*

### 1. 필자의 말

스탈린시대에 강제 이주되어 법적·사회적 그리고 경제 및 민족문화적 평등을 빼앗긴 많은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재소 한인의 역사<sup>1)</sup>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국 문헌의 불모지였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역사적 운명에 대한 관심과 인종적 문화 그리고 모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재소 한인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다.

카자흐국립대학에서 오랜 기간 독일어 강의를 한 후,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민주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이전의 연구를 중단한 채, 필자는 1987년 신비롭게 느꼈던 고려사람에 대한 역사연구의

---

\* 이 글은 먼 곳에서 어렵게 입수되었으며, 현재 필자를 만날 수 없으므로 자료인용의 형식이나 명확한 의사전달에 미비한 점이 있다(편집자 주).

\*\* 카자흐공화국 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연구원

1) 구소련의 붕괴와 각 공화국들의 주권 및 독립 획득과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견해로는 이미 ‘고려 사람’이란 용어가 존재하나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길로 접어들었다.

필자가 이 글을 쓴 1988년 초는 강대국 구소련이 아직 분열되지 않았으며 안정되어 있었고 거대한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국민들은 서로 서로에게 총을 들이대지도 않았고 구소련 공산당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력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고르바초프(Михаил Горбачев)는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던 때였다.

그때부터 구소련에서는 많은 점에서 근본적이고 비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났으며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 재소 한인들의 사회·문화적 발전의 몇 가지 측면들은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구소련의 한인 교포들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대외 정치요소들도 나타나났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에서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분류해냈다. 그러나 필자는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출간되는 본 논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음 연구자료들과 비교가 역사적 인식과정의 질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혀 체계적이지 않으며 극도로 분산되어 있던 역사자료들을 찾는데 나에게 도움을 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고문헌보 관소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어와 한국사 그리고 문화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 데 대하여 Korean Research Foundation과 Korea Foundation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한국어로 나오게 된 것은 러시아어를 잘 알고 구사하는 필자의 한국인 친구 유학수 군 덕분이다. 유학수 군의 개인적인 주도에 따라 대단한 번역작업이 실행되어졌으며 단지 몇 가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서만 필자의 설명이 필요했었다.

이 논문이 멀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 핏줄의 형제들의 역사와 현재의 생활을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소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 2. 머리말을 대신하여

한국은 구성원으로 파악할 때 단일민족이다. 휴전선 이남에는 4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이북에는 약 2천만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4백만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Брых, 1986: 381).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 집단은 중국(2백만), 일본(67만), 구소련(1989년 예비통계에 따르면 42~43만), 그리고 미국(약 1백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연증가와 남한의 집중적 이민으로 한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총인구 수는 1979년 전연방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38만 8천9백명(1970년: 357,500명, 1959년: 313,700명, 1939년: 182,300명, 1926년: 87,00명)이다(Козлов, 1982: 287). 현재 거주상 배치는 스탈린시대 이주정책뿐만 아니라 재소 한인들 사이에서 이민 및 침투과정에 따라서 결정된 분산인구분포로 특징지워진다. 재소 한인들의 다수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공화국의 테두리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 즉, 우즈베크공화국에 16만 3천명(구소련에 거주하는 재소 한인 총수의 42%), 카자흐공화국에 9만 2천명(23.6%)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공화국들에서 재소 한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즉, 키르기즈공화국이 1만 4천5백명(3.7%), 타지크공화국 1만 1천2백명(2.9%), 투르크멘공화국 3천1백명(0.8%)이다.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한인들은 사할린 주(3만 5천명), 연해주와 하바로브스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의 많지 않은 수가 로스토프 주(5천7백명), 카르디노-발카르(5천명), 칼류츠크(1천명), 북오세티아(2천8백명)에 거주하고 있다.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서 모두 9만 7천7백명의 한인(2.5%)이, 우크라이나공화국에는 6천명 이상(1.5%)<sup>2)</sup>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2) 구소련방 인구수와 그 구성원(전연방인구조사 자료에 의거함).

구소련의 학술 및 사회정치문헌에서는 자칭 또는 통용되는 명칭으로서 구소련 한인(советские-хорейцы)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명칭 속에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의 엄청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민속학자 Р. Ш. Джарыгалсинова의 결론은 상당히 확실한 것이다. 즉 재소 한인들의 명칭(этноним)은 새로운 인종공동체의 형성과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의식과정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Джарыгалсинова, 1980: 44).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고대 명칭이 — 고려사람 그리고 조선사람(즉 '고려국가의 사람과 조선국의 사람'이란 뜻이다) — 남아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인 이주에 대한 첫 소식은 19세기 60년대 초 알려진다. 1863년 한인 20가구가 노브고로드 초소 소대장 육군중위에게 띠진헤 강 계곡에 정착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서 1865년 라자노프 마을에서 첫 한인 정착촌이 생겨났다(Рязанов, 1905: 206-222).

영주(양반)들의 이중 압제에서 기아와 가혹한 착취에 시달렸던 한민족은 1910년부터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공식 합방 후(한국의 일본총독부화) 한국사회의 극빈층이 극동의 남우수리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 데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김승화, 1960). 제정 러시아의 한인 이주 상황은 С. Д. Аносов라는 극동의 한인사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한국인은 고위 행정관료와 선교사는 물론 한국인, 러시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다. 한인 빈민들은 원만하고 순종적인 성격으로 인해 대농과 소농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바람직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생활의 불안정함과 정부의 주민관리 부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에 한인 거주를 강제하는 러시아의 정책은 온갖 강압과 전횡으로부터 한인을 완전한 무방비상태로 만들었다(Аносов, 1928: 17).

처음 10년간 재정(裁定) 행정부는 한인 이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다. 코르사코프, 두호프스키, 그로데코프 총독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한

인들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05년부터 새로 부임해 온 아무르 지역의 Ф. Унгербергер 총독은 러시아 서부지역으로부터의 이주운동을 독려하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유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한인 문제’는 1911년 아무르 탐험조사대상 중 하나였다. 이 조사의 결론은 앞으로 한인들의 지역 입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곤다츠지역 총독이 실시하게 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Песоцкий, 1913: 6). 하지만 행정부의 교체,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다양한 태도로 그들의 법적·사회경제적 그리고 민족문화적 불평등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다.

10월 사회주의혁명은 러시아의 모든 인민에게 사회, 민족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게 되었고 극동의 한인들은 소비에트 정권 수립과, 백군의 외국의 개입에 대항하는 빨치산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Бабичев, 1959; Грияорцевич, 1958; Ким, М. Т., 1979; Хан, 1958). 러시아 연방(극동)의 국가중앙고문헌(古文獻) 재단은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에서 한인 노동자들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듯이,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주제는 구소련 역사학에서 아직도 매우 약하게 조명되고 있다(Хасхина, 1960: 67-72).

극동지방 재소 한인들의 역사는 김승화의 논문과, 또한 한인들의 농업활동을 크게 강조한 다른 필자들의 논문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김승화, 1965; Аносов, 1960). 민족학의 관점에서 20년대 한인 생활을 전반적으로 특징지우려는 В. К. Арсеньев와 Е. И. Титов(1928)의 시도는 단편성과 도식성 때문에 비평할 가치도 없다. 소연방의 모든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은 처음 5년간 과도기와 시행착오단계를 거쳤으며 ‘급히 강행된 집단화’의 고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지방 한인들 사이의 집단농장운동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Али Захир의 충분한 정보가 담긴 논문을 볼 수 있다. ОДВК 코문의 예에서(러시아인과 더불어) “태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혁명가”(한민족과 더불어)의 필자는 지방 집단화시에 레닌의 민족정책원칙의 이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Захир, 1931: 76-81).

1937년에 접어들면서 한인의 벼농사와 어업협동조합과 집단농장이 생

겨나고 강화되었으며, 문화적인 발전 속에서 일정한 성공에 도달했다. 블라디보스톡의 한인학교, 중등특수교육기관과 한국어로 수업하는 사범 대학, 대학과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가 생겨났다. 극동에서 한국어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연극 동아리와 문학협회가 활동했다.

### 3.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역사 · 사회 · 통계적 특징

1937년 가을,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지역으로 한인들의 대량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다. 구소련 역사 · 사회 통계학 문헌에서 30년대 말과 40년대 초의 여러 민족들의 강제이주는 아직까지 정당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0~70년대의 논문 속에서 발카르인(카프카스의 터키 민족 중 하나), 칼미이즈인(유목 몽고민족 중 하나), 카라차예프인(카르카스 터키인 중 하나), 한인, 독일인, 크림 가가르인 그리고 폭발 직전의 국제정세와 전시상황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소연방의 여러 민족의 강제이주에 대한 진부한 내용이 널리 퍼졌다. 이 내용들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의 간첩, 첩보, 후방교란 등의 적대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몇 명의 연구자들은 마치 자발적인 이주처럼 극동에서 “벼농사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한인들이 이주했다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Н. И. Плагунов는 “황폐한 스텝의 관개지역으로 대부분 중앙아시아공화국 출신과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출신(사탕무재배)의 농민과 한인(벼농사재배)들, 남쪽 특수농작물인 벼, 면화, 담배재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되어 왔다고 주장했다(Плагунов, 1976: 260). 카자흐스탄에 한인들이 출현한 역사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이미 1987년에 출간된 Ф. Н. Базанова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특수한 벼농사 집단과 국영농장단체는 극동으로부터 한인 농장의 이주

를 요구하게 되었다. 연해주에서 재배된 벼농작물은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이윤이 생겼으므로 그곳에는 '달라스'라는 특수한 주식회사가 생겨났다. 회사업무의 경험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14,600개의 농장주인이 집단농장으로 이주가 예정된 것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1938년 11월 1일 카자흐스탄으로 18,526가구가 정착했다(계획이 126.9% 달성되었다) (Базанова, 1987: 80).

위에서 언급한 필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용된 주장이 구소련 사회의 많은 측면에 대한 진실의 친목과 왜곡이라는 긴 시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독일계 주민들은 1941년 8월 28일자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이주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인들에 관한 유사한 명령이나 결정의 존재 여부는 공개되어 있다. И. Сталин이 강행한 20만명 대량 이주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도록 부추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이 상황은 조건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는 대외정치상황과 대내정치상황이다.

제1그룹은 다음과 같은 것과 연관된다. 첫째, 1910년 한일합방, 둘째, 1918-1922년 극동지방에 일본 개입, 셋째,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일본의 앞잡이 황제 부의와 더불어 꼭두각시 만주국 성립, 넷째, 1936년 6월 일본정부가 구소련(미국 포함)을 적으로 선포한 <제국의 민족보호지령>을 채택, 다섯째, 1936년 7월 일·독 반공민테른 조약 서명, 여섯째, 1937년 7월 중국 국경지대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사주한 무력충돌 등이다.

이런 식으로 1937년 무렵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범위를 활발하게 확대시키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한인들의 대량 강제이주의 정당한 이유의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937년 무렵 국내에 조성된 상황은 독재자 스탈린과 관련된 총체적 경제·사회 및 민족문화 전체 때문이었다. 현재 구소련방에 거주하는 모든

소수민족에 대한(‘민족주의의 다양한 파괴’에 대한 강대국의 국수주의 노선으로) 스탈린의 병적인 불신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37년경 한인들은 극동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을 현저하게 통합시켰다. 한인들의 비중이 현저하거나 압도적으로 상당히 밀집된 지역은 ‘요주의민족’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포스예가(Росьер) 지역의 주민들은 한인들이 95%를 차지했고 법률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사실 한인지역이었다.<sup>3)</sup>

외국의 사료 편찬에서 한인들의 강제이주와 관련한 1934년 Еврей 자치주 한인 거주지역의 형성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 서방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실은 민족국가 자치주 설립에 관한 극동지방 한인들의 요구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송무,<sup>4)</sup> 1987). 우리에게 이런 가설의 증거는 현재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문서와 다른 자료들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는 바와 같이, 재소 독일인들의 민족국가 자치의 존재는, 불가강 독일 자치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수십만 명의 재소 독일인들을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공화국, 알타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킨 법령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감췄던 첩보망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힘든 상황을 가져왔다. 1937년의 정기간행물은 일본에 대해 그리고 첩보업무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И. Володин의 “소련의 극동에서 외국인들의 간첩행위”라는 기고문은 전형적인 것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한인들의 매판요소들’을 폭로하고 있다(《프라우다》, 1937년 4월 23일자). 한인 국적을 가진 인사들의 개인적인 첩보업무와 배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전민족에 대한 ‘국가 범죄자’란 꼬리표를 매

3) Б. Сохолов는 위에 언급한 논문에서 극동국가,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기타 사항 중에 한인 민족지역이 건설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틀린 것이다.

4) 헬싱키 대학 교수이자 언어학자·핀·우고르어(헝가리어), 한국어, 터키어족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음.



다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한국과 만주지방 국경선으로부터 수천km 떨어진 구소련 깊숙한 곳으로 한인들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정치·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첫째로, 면적이 극동지방의 영토보다 수십 배가 되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는 자연히 새로운 지역에서 한인들의 분산되고 분할되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는 독특한 경영방식의 고려없이 '강행된 연속적인 집단화'의 범죄적 방법의 결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1931~1933년 기아, 전염병, 그리고 기타 다른 재앙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카자흐스탄에서만도 약 2백만명에 달했다. 다른 공화국으로 1백3만명이 이민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61만 6천명은 되돌아올 수 없는 유목지로 옮겨갔다(《레닌세대》, 1988년 10월 19일자). 지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 있었던 노동자원의 이주 때문에 심각하게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남쪽 주들과 중앙아시아공화국들에서 이주자들의 배치는 이주한인들의 전통적인 농업활동 즉, 벼농사와 채소재배의 종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서방 연구자들은 극동지방에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한인 이주사를 언급할 때 주로 극동지방 내무경찰청(УНКВД)의 전직 국장인 Г.С. Люшхов(Сох, 1968: 408; 고송무, 1987: 29; 41~42; 서지숙(편),<sup>5)</sup> 1987: 48~49; 51; 89; 91)의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1938년 6월 Люшхов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도주했다. 자신의 논문시리즈에서 그는 가장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1937년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Люшхов, 1939a; 1939b). Люшхов의 말에 따르면, 그는 1937년 8월 크레믈린에

5) 논문집은 하와이 대학 정치학 평론가이자 교수인 서지숙의 주관 아래 하와이 대학 부속 구소련(아시아 부분과 극동)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연구센터가 준비했다.

있는 Сталихов에게 불려가 한인 이주에 대한 지령을 그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Люшхов는 극동지방에서부터 강행된 전체 한인들의 처음 이주시기를 카자흐스탄 인민위원회의 이주국 고문서와 강제이주에 처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라 밝혀냈다. 1937년 9월 초순에 극동지방의 한인 집단농장에서 모든 한인들의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1~3일간 식량과 필수품을 가지고 기차로 출발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관하여 구두로 발표하였다. 한국 국적을 가진 몇몇의 인사들은 합법적으로 한국과 만주로 떠났다. 일본의 연구가 L. Ikeda는 그들 중 몇 사람의 증언을 모아 극동지방 출신 한인들의 이주 연대표를 작성했다(Wada, 1987: 51).

하바로브스크	?
서흥개흥	9월 10일
스빠시지역	9월 12일 이전
이만지역	9월 12일 이전
포스예가지역	9월 12일 이후
그로데코프지역	9월 13일
슬라반 아디미	9월 16일 이후
볼설로프지역	9월 25일 이후
블라디보스톡(시)	9월 25일 이후
블라디보스톡(주)	10월 5일
크라스키노	10월 20일
한찬로우	11월 11일
시디미	11월 11일

18만명 수송의 기술적 측면은 탄압적이고 강압적인 메커니즘의 아틀라체노스치로 놀라게 한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만일 난방차(화물차 등에 난방장치를 한 임시차량) 한 대에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1,800여 개의 차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카라간다 주 집행위원회의 자

료는 이 계산들로 만들어졌다. 즉, 1937년 11월 13일 카라간다로 8열차가 도착을 했다. 처음 4열차에는 1,059가족이나 5,565명이 탑승했다(카라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8 Op. 1 D. 164 Sv. 13 L. 11; 33). 따라서 1회 수송(동시 수송)용 열차가 약 130대가 필요했었다. 수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37년 12월 20일자 《프라우다》지에 개재된 소연방 인민위원회와 전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단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소연방 인민위원회와 정부의 주요 수송업무가 모범적이고 명료하게 실행된 데에 극동지방 내무경찰청(УДКВД) 국장과 Г. С. Ломухов 동지와 모든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이 과업수행에 참여했던 극동지방 철도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떤 “수송에 따른 주요 과제수행”에 관한 이야기 인가와 나아가 이것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한인들의 도착 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서방의 역사편찬에서도 수송시에 야기된 인명 손실 문제는 묵과되고 있다. 강제이주의 과격성과, 부자연스럽고 비위생적인 수송과 식량조건들, 운행 도중에 의료지원 부재는 높은 발병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연령그룹인 어린이와 노인들이 고통을 당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보관소: F. 12208 Op. 1 D. 109 L. 66).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들의 체류, 분포 및 경제문화적 체계와 관련한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Н. П. Ким, 1970; 1971: 63-67).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카자흐공화국 국영 중앙고문헌보관소에는 공화국 내무 인민위원회의 이주국과 고문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F. 1208). 또한 공화국의 국영 주 고문헌보관소에는 주 집행위원회 이주국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685; 탈디-쿠르간다: F. 1152; 크즐-오르다: F. 283; 침켄트: F. 399; 카라간다: F. 27). 지방에 있는 당과 소비에트 기관의 이주민·한인들에게 물질적 원조, 재정적 원조, 식량원조,

건축자재 공급과 가옥, 학교, 의료원 생산시설 등의 건설 등을 수용하는 업무는 카자흐스탄 주의 한인들이 집중적인(밀집된) 분산 이주에 관하여 현지의 구역 집행위원회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탈디-쿠르간다 주, 카르탈 주 집행위원회 재단에 그런 종류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었다(탈디-쿠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1304). 위의 문서들이 작성된 것은 1937~1940년이다. 즉, 이 시기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sup>6)</sup>

한인 수의 대략적인 총수를 계산하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1939년의 인구조사자료는 대략적으로 발표되어 공화국내의 한인 총인구수인 9만 7,296명을 보여주고 있다. 표1은 최근의 인구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sup>7)</sup>

인용된 통계자료들은 지난 세월 동안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배치에서 눈에 띄는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카라간다 주와 남카자흐스탄의 5개 주에는 1938년 12월 1일자로 이주 한인들의 70%가 형성되었고, 195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곳에 70%가 거주했고 1970년에는 69%, 1979년에는 69.9%가 거주했다고 한다. 1937~1940년의 문서와 1979년의 인구조사의 비교는(지역연구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분포도가 현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크질-오르딘스크 주의 한인들이었다(1959: 4.37%, 1970: 2.73%, 1979: 2.22%). 모든 남카자흐스탄 주내에 한인들의 비중은 공화국 평균

6) 유사 문서들이 우즈베크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와 주 문서보관국에도 있다.

7)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속학적 특징에 따라 표1 및 표2는 1959·1970·1979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필자가 작성·계산한 것이다(카자흐공화국의 1959년 전 연방인구조사 결과, 모스크바, 1962; 카자흐공화국 인구, 전 연방인구조사 결과, 알마하타, 1960·1970년 전 연방인구조사 결과, 모스크바, 1973, 1권; 소연방 인구 수와 그 구성, 1979년 전 연방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것, 모스크바, 1984; 1979년 전연방인구조사 결과(주 작성자료에 따른), 알마하타, 1983, Ch.2. 다른 자료의 이용은 특별히 단서를 달고 있다).

표1 1959·1970·1979년 전연방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카자흐공화국 한인 분포  
(해당 연도의 국경선 기준)

주	1959	1970	1979
알마하타 주	20,501	4,391	4,720
알마하타 시	2,474	6,908	11,423
잠불	5,474	8,228	12,215
크질-오르다	14,300	13,429	12,503
탈디-쿠르간	*	12,514	12,215
침켄트	8,728	9,872	11,071
구르예프	2,504	2,988	2,946
카라간다	12,034	13,391	10,638
구스타나이	2,346	2,730	3,066
첼리노그라다	**	1,872	1,958

\* 알마하타 주로 편입

\*\* 다른 주들로 편입

수치를 증가했다. 한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침켄트와 잠불 주에서만 나타날 뿐이며, 카라간다와 크질-오르다 주의 한인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카자흐스탄내의 한인 분포에 본질적인 변화는 촌락에서 도시로 집중적인 유입에 있다(표2). 이런 과정에서 대체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의 집중적인 이동이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매우 낮은 출산율에서 도시 주민들은 농촌 주민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즉 1960~1970년에 2.9배, 1970~1975년에 4.3배, 1976~1980년 8배로 늘어났다(Реннер, 1981: 206~207). 1937~1940년 농촌 한인들의 비중이 80%에 달했다.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한인이 80%에 달했다. 한인들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속도는 공화국 평균수치를 초과하고 있다.

공화국내 한인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주민

표2 1959·1970·1979년의 전 연방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카자흐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한인들의 상관관계

(해당 연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주	1959		1970		1979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알마하타 주	6180	14321	599	3792	989	3721
잠불	3331	2152	6908	2135	9549	1816
크질-오르다	9235	5065	10279	3150	11032	1471
탈디-쿠르간다			6251	6263	6732	5483
구르예프	2014	490	2359	344	2679	267
카라간다	10978	1056	12811	580	10288	350
쿠스타나이	1185	1161	2359	371	2679	381
체리노그라다			1449	373	1625	333

거주지역의 행정적 변화와 도시 한인들의 자연적인 증가로 급속도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1979년 인구조사자료(지역연구 작업의)는 카자흐스탄 한인들이 선택한 도시부락식의 거주지에 대해 증명해 주고 있다. 1959~1979년에는 거대도시(주의 중심지)로 끊임없는 유입추세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79년 구르예보(Гурьев)에는 주의 전한인 중의 86.6%가, 잠불에서는 71%, 쿠스타나이에서는 68%, 카라간다에서는 64.1%, 크질-오르다에서는 66%가 거주했다. 알마하타 도시내의 한인 수는 1959~1979년의 중간인구조사에서 4.6배 증가했다.

민족적 특성과 관계없이 이민 과정의 특이성을 연구하기란 어렵다. 1970년과 1979년의 인구조사자료 작성은 단지 공화국 토착민에 따른 주민 이주를 연구할 가능성을 부여했다. 민족적 특징에 따른 통계자료의 부족은 인종적으로 다른 자료로 보충해야 한다(Арутюнян, Дробижова and Кондратьев: 55~57).

언어변천(днaхрoннa) 계획에서 카자흐스탄 한인 이주는 주요한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그룹은 극동지방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건설 시기인 1937~1940년대와 관련이 있다. 떠나는 지역과 이주해 들어오는 지역의 자연기후의 차이, 그들의 전통적 경제수단 즉, 벼농사와 관개채소재배에서 환경조건의 부재, 또한 경영조직에서 불충분함과 실수와 오류 그리고 현지의 이주 한인 생활방식이 우즈베크공화국의 관개농업지역으로 대량 유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일부 이주는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했다. 1940년 2월 10일의 상황에 따르면 크질-오르다 주 집행위원회 이주국의 충분치 않은 자료에 따르면, 1938년 초부터 5,506한인이주가족 중에서(노동자와 사무자 제외) 우즈베크공화국으로 1,827가정, 즉 1만명이 이주했다(카자흐스탄공화국 국가고문헌보관소: F. 1208 Op. 1 D. 109 L. 80-81).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한 한인의 총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필자의 관점으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크공화국의 내각과 내무부의 이주국 고문서자료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인들에 대한 영토 재배치의 두번째 흐름은 한인들에게 극동과 연해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시민권 제한이 폐지되었던 1950년대 후반에 해당된다(《논거와 사실》, 1988). 재이민자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극동지역과 사할린으로부터 역이민 물결도 나타났다. 일본 《朝日》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고송무는 전후 시기에 사할린으로부터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한인 수는 4만에서 6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송무, 1987: 34). 필자의 견해로는 이 수치는 적어도 몇 배 정도는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1939~1959년의 인구조사 중간시기에 중앙아시아공화국과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의 전체적 증가는 22%에 달했다. 이는 이 시기 한인 가정의 높은 신생아 출생률 때문에 확실히 받아들일 만하다. 만일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지역의 한인 총수(195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2만명)에

서 언급한 4-6만명을 빼야만 한다면, 1939년 18만 2천명에 추산되는 한인들이 20년 동안 결코 어떠한 증가도 나타나지 못했으며 매우 높은 사망률과 구조적인 감소가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는 보존되고 있는 어떠한 자료와도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

국민경제의 계획에 따른 균형적 발전에 관한 법령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른 내부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노동자원의 일정한 영토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적의 달성은 노동력의 국가조직적 징집에 따른 이주를 촉진시켰다. 공화국별 노동력의 국가조직적 징집은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됐다. 1950-1953년 목화재배용 채찍 사이 광범위한 개간과 관련하여 탈디-쿠르간다 주 카라탈지역 몇몇 한인 국영농장이 적은 양과 채산성의 저조 때문에 남사할린 두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주자의 총수는 1천5백~2천명에 달했다(탈디-쿠르간다 주 국가 고문헌보관소: F.1304 Op.1 Sv.8 D.31 L52). 60년대 초 일리강 삼각주 개간시 벼 재배용 바카나스 마을지역(알마하타 주)과 탈디-쿠르간다 주, 알마하타 주, 크즐-오르다 주로부터 거대한 “바끄바끄친” 벼농사 농장의 조직과 관련하여 국가 노동력 모집에 따라 한인 약 200가구가 가정 이주했다(Дон, 1961: 10). 카자흐스탄 한인의 기계적인 기동성의 몇 가지 형태는 거의 어떠한 통계적 논거들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공화국내뿐만 아니라 공화국 외의 이주 경향을 갖는 재소 한인에게 특수한 계절 이주에 관한 것이다. 이주의 규모와 지역·계절 이주의 성별과 직업상의 구성을 대략적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인들의 계절농업에 따른 이주는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인종 환경적인 면의 효율성 — 특정 농작물(파, 마늘, 채소, 참외류) 재배의 민족적 경험, 경제적 효율성, 즉 완제품의 수입이 아닌 현지에서 이 농작물을 재배, 연금수혜자들을 활동적인 노동으로 도입 — 등이 그것이다.

재생산 방식의 변화와 자연적인 감소로 뿐만 아니라 공화국간 영토 재배치에 따라 결정된 한인의 움직임(역동성)은 표3에서 나타나 있다.

구소련의 고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문헌에서도 한인들 사이의 인.



표3 1939·1959·1970·1979년 전 연방인구조사 자료에 따른 카자흐스탄공화국 한인의 움직임(역동성)

연도	인원수	비중(%)	총 증가(%)
1939	97,296	1.6	100
1959	74,019	0.8	-24
1970	81,598	0.6	10.3
1979	91,984	0.6	12.7

구학적(사회통계학) 과정을 해석하는 데 많은 오류, 비정확성, 그리고 잘못된 평가 등이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는 주로 충분한 인종인구학 정보를 담고 있는 충분한 통계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경우에서 우리 나라 인구조사자료들을 국외 연구자들이 의식적으로 몰래 바꾸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는 20~30년대 소연방의 한인 수에 관한 문제이다. 즉, 평가의 차이는 8만 7천~30만명까지 변동이 있다. 이는 극동 한인들의 역사인구학적 특성이 지금까지 특별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공개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수를 1926년 5만 2천명으로 규정한 А.М. Егнazarян의 논문(1965: 89)에서 나타난 오류는(이 경우 문제는 오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의 총인구 속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8%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 연구가들의 많은 저서와 논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실제로 19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42만명의 한인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Галев, 1978: 42-48).

서방 역사편찬자료에는 197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38만 9천명으로 한인들의 총수가 제대로 번역되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연방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란 논문집(서지숙 편, 1987) 서문에는 “지금까지 50만 이상의 한인이 소련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신윤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100년 전 30명의 한국인이 처음으로 남우수리 지방으로

이주해 왔고 소련방 한인들의 수는 약 75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쓰고 있다(신윤자, 1988). 1979년 두 차례 공식적인 인구조사자료의 차이점을 신윤자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는, 러시아 국적자인 아버지를 가진 다민족 가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인에 도달한 자녀들은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윤자는 “높은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인구조사에서 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신윤자, 1988: 65).

이 경우 신윤자는 한인 남자들도 민족간 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자신들을 한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매우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 선택은 많은 요소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Сухолов, 1986: 152-180). 심지어 ‘인구조사의 누락’에 관한 주장은 비평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당시 한인 가정들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여러 배로 낮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신윤자의 논리를 따르자면, 모든 구소련 사람들은 인구조사에서 누락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소련방 인구 총수는 약 5억명에 달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통계학 과정은 일정한 나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89년의 전연방인구조사자료는 카자흐스탄의 한인에 대해 1979년 인구조사자료와 현저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4. 공화국 국민경제발전에서 한인노동자들의 참여

카자흐스탄의 이주 한인들 중에서 독립된 새로운 집단농장을 조직했거나 또는 다른 농장으로 이주하였다. 1938년 12월 1일 6,905가구로 이루어진 이주 한인들의 독립적인 국영농장이 57개나 생겼다. 기존에 존재했던 196개의 집단농장으로 3,784한인 가정이 이주했다. 독립적인 집단농장이 가장 많은 주는 크질-오르다 주 26개와 알마하타 주의 15개로 집약되어졌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1208 Op.1 D.26-a L.49).

1937-1940년 고문서 자료는 새로운 인종과 자연환경 속에서 이주 한인들의 분포, 경제구조 그리고 적응과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게 진행되었음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다. 첫째로 대륙성 기후인 카자흐스탄의 특이한 자연기후 조건은 극동지방 연해주지역에 익숙한 환경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는 객관적으로 이주자들의 환경순응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1208 Op.1 D.26-a L.42).

둘째로 새로운 독립 집단농장 조직과 기존 농장으로 상당수 사람의 이주는 재정적·물질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주 한인들의 경제구조에 대한 조치에 따른 차관에는 각 이주 가정마다 200루블의 '관개농업 차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1938년 계획된 차관 3백40만루블 중 단지 1%만인 3-4천루블만을 활용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1208 Op.1 D.33 L.33-34). 가옥과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용 시설의 건축상황에 관한 명세서는 계획 실행에서 만성적인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카라탈지역에서 1938년 10월 1일 933개의 가옥건축계획 중 단지 104개의 가옥만이 완공되었고 733개는 단지 50%만이 완공되었다. 1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6개의 학교는 단지 2학교만이 건축되었다(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685 Op.4 D.26 L.5-6).

세번째로는,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 강제이주는 이주 한인들로 하여금 이주지에 모든 동산과 부동산—가옥·부속 건물(마당채)·농기구·가구·가재도구·가축—을 남겨 두게끔 만들었다. 이주된 농업협동조합은 극동지방 협동조합의 일부에 대해 많지 않은 부분적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재산과 거두어들이지 않은 수확물들도 남겨 두었다. 주 집행위원회, 카자흐공화국 내각 그리고 소련방 내각 산하의 이주국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부탁이 실린 이주 집단농장의 수많은 편지와 전보가 날아들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2208 Op.1 D.26a L.9; D.30 L.80; D.41 L.128-131).

넷째로, 카자흐스탄의 이주자 분포지역에서는 환경학적으로 조건이

구비된 전통적인 농업방법인 벼농사와 관개채소재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외가 된 것은 탈퇴-쿠르간다 주와 일련의 크즐-오르다 주들의 카라탈 지역이었다.

다섯번째로, 한정된 수자원(水資源)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건조 지대, 임야와 관개 및 저수 수로의 마구잡이식 설계, 새로운 자연 및 기후조건 속에서 벼농사와 곡물재배의 농기술 숙련과 경험의 부재, 에너지원과 재료 및 기술확보의 낮은 수준 또한 이전의 가내수공업자, 금채취인, 노동자, 어부 등이 가입하고 있는 이주 집단농장의 무질서한 보충은 새로운 땅에서 초창기에 흉년을 초래하였다. 1940년 1월 카자흐공화국 각료회의는 한인 집단농장의 처참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련방 각료회의 산하 경제위원회에 6823체트네르(10분의 1톤, 100kg의 중량) 곡물의 식량대부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인 집단농장에 식량 원조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보관소: F. 1208 Op. 1 D. 55 L. 54~56).

이 모든 어려운 오류와 결함, 많은 경우에 현지 지도부의 범죄적 무책임성과 인원 부족(결원)은 많은 한인 집단농장의 붕괴와 자체 폐쇄를 초래하였다. 1937~1940년의 고문서에서 그 수치는 71개에서 51개까지 변동을 보이고 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소비에트 기관의 광범위한 조치 실행과 현지 집단농장과 이주 한인들의 많은 노동손실의 결과, 카자흐스탄의 한인 집단농장들은 여하튼 1937~1940년에 한층 더 발전된 생산기술과 생활 터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구소련 국민들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노동은 독일의 침공으로 단절되었다. 전쟁 첫날에 이미 수백 명의 남성들이 자원병으로서 전선 출두지원서를 가지고 군정치위원회에 찾아갔다. 비록 한인들에 대해 현역군대입영 금지에 관한 명령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한인 국적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붉은 군대에 속한 자신들을 용맹스럽고 재치 있는 군인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몇몇 재소 한인은 최고 칭호인 소련방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민병 대장인 알렉산드르 민은 전쟁 첫날 모스크

바 근교 전선에서 1943년 6월 적색 성형훈장을 수여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11등급 조국전쟁훈장을, 1944년 2월 알렉산드르 넵스키 훈장을 수여받았다. 1945년 3월 25일자 소연방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사후 소연방 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sup>8)</sup> 김승화 논문에는 잠수함 함장 Алексей Хан과 경찰병이자 하사인 В. И. Дой, 포병 대장 스제뻬안 전, 조국을 위해 전투에서 용감하게 숨진 기관총 사수 Михаил Тэн의 소연방 영웅의 용맹성과 헌신성에 대한 짧은 정보가 인용되고 있다(김승화, 1965: 230-232).

많은 한인 남자들은 여러 군수산업 부지와 방위시설 건축 등지에 노동 징집되었다. 일부 한인남성들은 더 많은 생산품을 전선에 제공하려고 밭에서 일했다. 일손, 영농기술, 노동력 가축(역축), 비료 등의 커다란 부족에도 한인 농장들은 전쟁기간중 파종 면적지를 증가시켰고 재배농작물의 수확률도 높였다. 이렇게 하여 “아반가르드”(선봉) 집단농장은 1941년 270헥타의 파종 면적을 1945년 1001헥타까지 확장시켰으며, “III 인터네셔널 집단농장”(III Интернационал)은 각각 240헥타까지 확장했다(김승화, 1965: 234).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노무자들에게서는 새로운 자연기후적 조건과 수질·토양조건 속에서 곡물재배 특히, 쌀에 대한 경작경험이 축적되었다. 평균 수확량에 비해 1939년에서 1941년 사이에는 수확량이 현저히 늘어났다.

전위 작업반의 수확량은 집단농장의 연평균 수확량을 훨씬 넘었다. 좀더 나은 벼농사 재배자들은 그들에게 확보된 경작면적으로부터 4-6헥타에서 80헥타까지 얻을 수 있었다. 기록적인 수확량을 기록한 것은 전쟁기간중과 전후 시기에 뛰어난 벼농사 재배자들이었다. 10헥타 경작지에서 150첸트네르헥타 곡물을 수확한 아반가르드 집단농장의 반장이자 사

8) А. Р. Мин의 훈장목록 사본은 크첵-오르다 주 중앙고문헌보관소: F. 148, D. 74, L. 1-2를 참조하라. А. Р. Мин의 공적 묘사는 《소련 영웅-카자흐인》(1968: 57-58)이란 책에 담겨 있다.

회주의 영웅인 김삼만(Ким Сам Ман)이 대표적이다(Пах, 1950: 20-21; 김삼만, 1943). 카자흐스탄 수천 명 한인 노동자들의 노동영웅주의는 당과 정부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었다.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헌신적 노동의 대가로 메달을 수여받은 이들 중 카라탈지방에서만도 한인들이 1천명 이상이었다(탈디-쿠르간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1304 Op.1 Sv.4 D.11; D.11-a).

적군에 대한 승리와 종전 후에 구소련 국민들의 모든 힘은 구소련 집단농장 건설에 능동적으로 투여되었다. 7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67명의 카자흐스탄 한인들 중 60명이 1946~1958년 동안 소련방 최고회의 간부회 명령에 따라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탄할 만하다(《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자흐스탄인들》 4권).

전통적인 벼농사나 채소재배 농사 외에도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농업 종사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해야만 했다. 1950년 1월 19일자 소련방 각료회의와 전소련방 공산당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카자흐공화국의 남카자흐스탄과 잠볼 주의 면화재배의 좀더 빠른 발전조치에 관한 결정을 기초로 하여, 췌트 사이 지대의 개발만을 위한 노동력을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징집하기 위해 한인 가정의 이주가 계획되었다(탈디-쿠르간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1152 Op.1 Sv.49 D.341 L.16-19; 31). 1950년대 말 탈디-쿠르간 주 카라탈지방 III 인터네셔널 집단농장의 41개 한인 농장은(227명) 남카자흐스탄 주로 이주했다. 동시에 “진보”와 “사회주의로 가는 길” 집단농장의 모든 한인들은 이주했고 1952년 말 보로쉬로프 집단농장에서는 208가정(576명)이 이주했다(탈디-쿠르간 주 국가고문헌 보관소: F.1304 Op.1 Sv.8 D.31 L.52-57).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는 일리치 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 “공산주의 여명”, “III 인터네셔널”이라는 한인이 속해 있는 면화농장들과 “파흐티-아랄”(Пахта-Арал) 국영농장이 생겨났다(《카자흐스탄 농업》, 1955: 6-9; Хван, 1956; Ди, 1974).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면화재배 종사자들은 이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인 가정에서는 새로운 농작물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서로

서로 나누었다. 수십여 명의 한인 면화재배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장이 되었다. Л. И. Кан, Ли Гым Нен, Ф. И. Л. Хван 등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았다(《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자흐스탄인들》 4권: 458; 605; 607; 709).

채소 및 기술작물재배에 있어 대성공을 거둔 이주민들은 한인 집단농장원들이었다. 탈딕-쿠르간 주 카라탈지방의 “레닌의 길”과 같은 집단농장은 공화국 밖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집단농장의 생산활동의 결과는 1952~1956년 소연방 국민경제달성 박람회(ВДНХ, 모스크바 소재, 1959 매장)에서 전시되었다. 사탕무, 채소, 참외류 농작물재배에서 이룩한 성과로 5명의 한인 집단농장원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부여받았고 8명이 레닌 훈장을, 13명이 노동 적기 6훈장을, 39명에게는 메달이 수여되었다(강주홍(Кан Тю Хон), 1954: 7; П. С. Хан, 1957).

특별히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은 파경작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이었다. 60년대 초 탈딕-쿠르간 주 카라탈지방 집단농장들은 국가와 조달청에 카자흐스탄에서 재배된 70%의 파를 상납했다(Хан, 1959: 82).

현재까지 파 생산기술은 사실 변화가 없다. 파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작업은 손으로 이루어졌다(제초, 보비, 파뽑기, 깃털치기, 주머니에 담기, 운반 등). 그러나 채소재배 농장 수입과 파재배의 물질적인 관심을 격감시킨 매점가격이 변화되었다. 60년대 중반부터 공화국 전역과 공화국 이외에서 임대 및 청부계약과 유사한 원칙에 따라 편성된 한인 채소재배 및 참외류 작업반들이 일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정과 규정의 부재로 인해 계절 이주민들은 비합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일종의 위반과 악용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레닌 기치》, 1989년 3월 15일자).

전후 시기에서 집단농장 건설의 경험은, 30년대 생겨난 소집단농장들이 더 발전했다. 하지만 모든 과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50년대 초 한인 주민들이 속한 모든 농업협동조합은 다른 집단과 농장 강화에 관한 당과 정부의 많은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통합된 집단농장들의 조직적 문제와 생산과제의 결정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혼

히 경제적으로 튼튼한 집단농장들은 작고 연약한 농장들과 합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통합에 관한 문제결정시 자발성 원칙이 자주 위반되었고 다양한 집단농장들의 연합의 경제적 합목적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 1950년 1월~1951년 1월의 시기에 거대한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업무결과로 인해 집단농장 수가 3,670개까지 줄어들었다(Савосъхо and Шамагов, 1974: 88).

1957~1965년에는 크즐-오르다 주에서는 266개 집단농장 중 불과 88개 집단농장만이 남게 되었다(크즐-오르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585 Op. 2 D. 582 L. 27; Op. 2 D. 654 L. 3-6; Op. 4 D. 135 L. 18-20). 확대·확장시에 주의 모든 한인 이주 집단농장들은 특히 카자흐 주민들이 속해 있는 집단농장들과 연합하였는데, 이는 그들 민족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일과 초창기 경제에 따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집단농장들의 확고함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즉, 집단농장의 재정적 여건이 개선되었고, 파종지가 확대되었으며, 물질적·기술적인 토대가 확고해졌으며 집단 가축사육이 수가 늘어났다(Тупебаев, 1984; Колюдин, 1971: 164~193).

확장된 카자흐스탄의 집단농장들은 다국적 노동조합체가 되었지만 60년대 중반까지 크즐-오르다크와 탈디-쿠르간다 주에 있는 농장 중 몇 개의 집단농장들은 현저한 한인 수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남아 있는 전통에 따라 흔히 한인 집단농장이라 불렸다.

다양한 전문 농업생산을 갖춘 집단농장에서 이주한 국적자들의 노동활동에 일정한 전문화가 나타났다. '수평형'의 분업과 분야별 분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험과 문화적 전통에서 초래된 것이다.<sup>9)</sup> 방목에서 목동들은 주로 카자흐인들이었는데 한인

9) 서방에서는 전후 시기에 광범위한 경제 교류학 발전이 있었다(수련 학문에서 보편적인 용어인 경제민속학 혹은, 민속경제학이라 함). 소연방 노동 행위의 민속문화적인 특수성 연구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Ю. В. Бромлей(1987: 202-218)을 볼 것.



종사자들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일반 농작물재배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인들의 축산에서 높은 결과의 성취는 특이한 성격을 띠었다.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카자흐스탄의 한인 67명 중 단지 1명인 Ф. Ф. Нояай만이 축산 발전의 공로로 높은 칭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탈디-쿠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304 Op. 1 D. 18 Sv. 6 L. 10).

다국적 집단농장의 공동노동에서 새로운 노동의 숙련을 얻었으며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노동에서 얻은 경험들을 전해 주었다. 카자흐인, 한인, 독일인, 터키인, 아제르바이잔인 등 다양한 국적의 쌀재배 전문가들을 길러내 Ибрай Жахаев와 Ким Ман Сам이란 2명의 뛰어난 벼농사 배자들의 우정과 협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카자흐시카야 프라우다》, 1946년 7월 3일자; 1949년 7월 29일자; 1953년 1월 7일자).

숙련된 농업 전문가들과 구(區) 및 주 단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한인 국적을 가진 대표자들도 적지 않았다. 사회주의 노동영웅인 Дой Зя Ир 우쉬토베 트랙터 배급소 소장은 4반세기 이상을 기계(선반)를 관리해 왔다. 1942-1950년 트랙터 배급소에서는 매년 30-40%의 트랙터 작업계획이 초과 달성되었다. 1954년 전연방 농업전시회에서 우쉬토베 트랙터 배급소는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배급소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목표를 달성한 배급소의 많은 수에 대해 Дой Зя Ир는 명예훈장과 2개의 노동적기훈장, 수많은 소연방 메달, 카자흐공화국 최고회의와 소연방 전 연방 농업전시회(ВСХВ)의 명예증서를 수여받았다(《사회주의 노동영웅》 2권: 407). 우쉬토베 트랙터 배급소 기계 기사들인 Хе Вон Хах, Дай Тхя Вон, Дой Фирму, Дой Сгепан, Хан Са Сун 등은 1956년 '카자흐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콤파이너(채굴기) 기사'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Ким Дон Гуг과 Ким А. Г.는 '카자흐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트랙터 기사'라는 칭호를 받았다(카라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152 Op. 1 Sv. 82 D. 532).

한인 분포 밀집지역에서 나온 고문서 자료 연구는 한인 노동자들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해 주었다. 가장 큰 한인 단체는(1937년 12월 13일자, 이 단체는 1600년 이상으로 집계된다) 카라간다 광산

과 보조직과 실무직의 노동활동으로 이주 후 편입되었다(카라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18 Op. 1 D. 164 Sv. 13 L. 1-5). 일련의 도시와 마을 등지에서 이주 한인의 경제 구성시기(1937-1940)에 근로자들의 압도적인 민족 구성원으로 한인산업협동조합이라 불린 다양한 산업협동조합들이 형성되었다.

1950년대 초 탈되-쿠르간다 주에서는 18개의 산업협동조합, 3개의 도시산업단지, 13개 산업단지 등이 활동하였고 크질-오르다 주에서는 상당수 한인 도시노동인구가 종사했던 21개 협동조합, 2개의 도시산업단지, 8개의 구(區)산업단지 등이 활동했었다. 산업협동분야에서 한인 국적자들의 국제적 생산활동 분야에 불균등이 나타났다. 한인 남자들은 금속생산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즉, 기계기사, 주물공, 철공(자물쇠제조공), 선반공 등이다. 건설공장에서는 목수, 용접공, 잡역부로 일했다. 압도적인 한인 여성의 수는 봉제공장이나 메리야스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60년대 경제구조의 작업개선을 지향하는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변화의 물결은 협동조합 공장을 대부분 폐쇄시켜 버렸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발전은 종사자들의 민족적이고 직업적인 구조와 활동 분야별 분배에서 변화를 수반하였다(Нусупбеков, 1966; Асыпбеков, Нурмухамедов and Пан, 1976). 한인 분포지역에서 공화국의 공업적 토대, 물질적 하부구조의 양적이고 질적인 상황은 대부분 경공업 공장과 중공업 공장 생산참여 수준을 결정했다. 1940~1950년 사이 남카자흐스탄의 산업은 주로 농산물 가공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경우 현지 원자재를 이용하였다. 경공업, 중공업생산에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각자 분야와 전문분야의 선호가 한인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크질-오르다와 우쉬토베의 고기공단과 버터공장에는 얼마 되지 않는 한인들이 취업해 있었다. 당시 카라탈 공장에서는(1964년부터 유르트·카자흐 유목민들의 임시용 텐트·제고공장) 300명의 근로자 중 한인들은 1/3 이상이였다(탈되-카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456 Op. 1 D. 53 Sv. 5 L. 64). 모든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크질-오르다의 기계, 가죽, 벽돌공장과 신발공장에서 일하였다.

석탄채취 광산 산하 노동자 마을에 속하는 카라간다 주 이주 한인들의 경제구조의 특성과 위대한 조국전쟁 기간중 군대소집과 1954년 전까지 거주지 자유제한은 채굴공업에서 한인 남성 취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문서 자료의 분석은 한인 광부들의 수가 5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60년대 초 일련의 한인 광부들에게 다년간의 돌격노동에 대한 공로로 '명예로운 광부' 칭호가 부여되었다.

기술적 생산수준의 발전, 숙련된 인력 양성의 질적 개선과 확충은 한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젊은 노동자들에게 직업의식 고양을 가속화시켰다. 경제건설 시기에 한인들이 대다수 숙련되지 못한 노동에 종사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숙련과 상응하는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얻을 수 있었다.

조직자의 능력과 높은 자질은 많은 한인들을 대규모 공업회사의 지도자나 최고 전문가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들의 노동은 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소연방 국가 유공자이자 만꾸дук(Манхудук) 광산 지부장 А. И. Кан, 1977년 국가 유공자이자 1973년과 1984년의 소연방 각료회의 수상자이며 켈즈카즈간(Жезказган) 구리제련 공장장인 Е. И. Пи 등이 그들이다.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민족 구성에 따른 통계적 보고자료 형태는 한인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한인들의 노동활동 분석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불충분과 정보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은 소연방의 국가 조직과 영토를 갖고 있지 못한 많은 민족들의 특징이다. 제19차 전연방 당대회를 겨냥한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논제와 그 문서 속에는 소연방 모든 민족들의 증대되는 민족의식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화국 정기간행물에 소연방의 전민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일반화하기 위해 1989년 전연방인구조사 설문용지를 발표하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담아 게재한 적이 있다. 이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 전민족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레닌

기치》, 1988년 6월 11일자; 《프로인드와프트》, 1988년 6월 17일자).

## 5. 카자흐스탄 한인의 문화발전

대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지역에 살고 있는 재소 한인들의 문화발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특히 일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재소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인종학자, 철학자, 예술학자 그리고 인문학자들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화 연구 중 대체로 성공한 첫 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3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0년간을 거친 김승화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그 연구는 구소련 정권의 수립과 강화시기에 재소 한인들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재소 한인들의 사회주의사상 발전의 주요 방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맹퇴치와 교육체계화 과정과 극동지방 한인들 가운데서 문화계승 연구와 방법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김승화, 1965).

민속학적 입장에서 보면, 재소 한인들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발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논문은 Ю. В. Ионов과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ой의 논문이다.<sup>10)</sup> 후자의 논문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민족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종 과정》이란 가장 유명한 저서에 게재되었다(Джарылгасинова, 1980). 한인들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 연구의 계승은 В. С. Дой의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Дой, 1983: 96-102; 1985). 모든 한국 민속학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기원 즉 전통과 혁신, 인종적 차별과 인종간 통합의 상호 보완이란 과정에서 재소 한인 문화의 문제 고찰이다. 이런 연구의 구조도 대체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즉, 소연방 한인 분포, 주요 직종, 마을과 의·식·주, 가정의 관습, 양식, 언어와 말, 직업문화와 같

10) Ю. В. Ионов과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ой의 논문 참고문헌을 상세히 살펴보라(Г. Н. Ким, 1987: 47-54).

은 것이다.

문화의 인종적 유사성이 나타나는 분야는 기술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진보에 따라 판단된다. 우리 세대의 특징인 물질문화의 넓은 표준화와 단일화에 관련하여 최근 인종적 특성이 각 분야로부터 더욱 많이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 한인과 상당 부분의 농촌 한인들의 최신 주거시설은 설계 요소나 내부 및 외부의 치장에서도 차이가 전혀 없다. 비록 재소 한인들의 물질생활 문화에 있어 민족적 특수성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신의 대량 공업생산물인 가구, 생활용품, 의복, 노동기구, 식기 등은 오늘날 그렇게 큰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혹은 구들, 중국식으로는 칸)이 딸린 가옥들을 아직도 만나 볼 수 있다. 온돌방에는 전통적인 실내 장식물을 접하게 된다. 즉 낮고 장방형의 식탁이나 원형 식탁인 밥상과 낮고 그리 크지 않은 의자인 목탁산, 쿠션식 등받이인 베개가 그것이다.

물질문화의 주요한 전통적 요소는 한인들의 음식 분야에서도 남아 있다. 음식의 기본은 전과 동일하게 쌀이다. 쌀로 만든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음식은 밥이며 이것은 소금이나 양념을 곁들이지 않은 물과 증기에 끓인 것이다. 밥과 더불어 모든 수프를 먹으며 밥은 두번째 음식에 곁들인다. 신선한 상태에서 끓인 밥은 차가운 맑은 물이 필요하게 된다. 싱거운 밥은 한국 음식의 대부분의 매운 음식을 중화시킨다. 양념에는 최근 북한과 쿠바에서 수입되는 간장과 된장을 쓴다. 한인들의 주요 음식 중에서 무엇보다도 고기 국물을 부은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삶은 면인 국수를 들 수 있으며 더운 계절에는 간장, 식초, 소금과 설탕을 섞은 차가운 물을 함께 한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는 발효된 중국산 배추와 양배추로 만든 매운 샐러드인 김치이다. 독특한 민족음식은 매운 양념과 더불어 짧은 기간동안 담그는 방법으로 만든 신선한 날물고기와 고기로 조리한 회가 있다.

전통적인 한국음식과 비교해 볼 때 육류 제품, 빵, 우유, 과자, 기타 가공식품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했다. 소연방의 다른 민족들과 접촉에 따

라 보르쉬(고기와 야채를 넣은 수프), 베스빠르마끄(살에 고기, 후추들을 넣어 만든 요리), 만떡 등과 같은 음식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Джарылгасинова, 1980: 54).

가족 축일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특별 음식이 준비되는데 그 중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증기 속에서 끓이고 그 후 긴 손잡이가 있는 망치로 나무 중에서 땀은 쌀 종류의 쫄깃쫄깃한 빵인 ‘찰떡’이다. 쌀가루로 삶아서 만든 둥근 과자인 전병과 발아한 통으로 만든 시금채, 양치식물로 만든 고사리채, 다시마류로 만든 미역채 등 다양한 채들이 준비된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공화국에서는 접촉하고 있는 민족들의 식생활에서 일정한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다른 민족에서 들여온 음식들에도 전통적인 민족음식의 요소들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식탁에는 보르쉬가 쌀로 만든 밥에 함께 곁들여지며, 카자흐인 식탁에는 베스빠르마끄가 다양한 한국음식들과 함께 나란히 나온다.

현재의 채소 한인들의 전통적인 민속의상을 단지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문화적 요소의 민족적 특성으로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전통의상의 제조와 착용은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 다소 나이든 여성들 사이에서만 입게 될 뿐이다. 전통의상은 채소 한인들의 프로연극이나 아마추어 예술 분야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문화의 요소로서 인종적 공동체에 유일무이한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Бротлей, 1983: 129).

채소 한인들의 가족간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세 시기를 기리는 전통이 엄격히 보존되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가 1살이 되는 날(첫돌), 결혼식, 60세 생일(환갑) 등이다. 삶의 이런 3단계는 지금까지 농촌 한인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한인들도 근본적인 민족 전통의 요소를 간직한 채 기다리고 있다.

어린 아이의 첫돌 축하잔치의 가장 중요한 볼거리는 그 아이의 운명을 알아보는 의식이다. 아이 앞에 채과 가위, 연필, 볼펜, 실밥, 쌀과 강낭콩이 담긴 접시 등을 얹은 상이 놓이게 된다. 어린이가 무엇을 건드렸는

가와 그 상 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의식의 외적인 형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인들의 옛 결혼의식은 매우 복잡하다. 결혼의식은 몇 단계들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많은 돈을 쓴다. 왜냐하면 모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인들의 결혼의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결혼의식의 일부 단계가 단축되거나 간소화되었고 몇몇 의식(중매, 약혼)은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했다(Джарылгасинова, 1980: 63-66). 흔히 젊은이들의 결혼은 특히, 학생간의 국제결혼은 전통 양식의 요소들을 상실했다.

환갑은 생일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비용의 부담은 대부분 장남이 진다. 나머지 자녀들은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환갑잔치의 볼거리는 샴페인 잔을 드는 것과 모든 자녀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환갑 맞는 이에게 축복과 더불어 절을 올리는 것이다. 환갑 맞는 사람에게 예전과 같이 장수의 상징인 대나무와 소나무가 그려진 비단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이다.

좀더 엄격한 전통은 장례식과 추도식에 남아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혼을 불러내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고인이 있는 방에는 흰 병풍이 펼쳐져 있으며, 그 병풍에는 붉은 천으로 된 장례용 깃발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고인의 성과 이름이 흰색과 붉은 색으로 새겨져 있다.<sup>11)</sup> 하루에 세 번 고인의 유족들은 큰절을 올리며 고인의 시신 앞에 음식이 놓인 상을 갖다 놓는다. 장례식 날에는 고인에게 의례적인 음식과 삼배를 올리는 제사라는 의식이 거행된다. 무덤에서는 장지 제공과 고인의 후견에 대한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 거행되며 매장 후 제사의식이 재현된다. 고인의 의복과 침구 용품은 불로 태우게 된다. 처음 2년 동

11) 장례 깃발 영전 위에는 중국의 한자가 써어 있고 묘비 위에는 성과 이름이 한국어 혹은 러시아어로 써어져 있다.

안에는 장례일을 기다리게 되며 그 후 달력에서 축일인 봄철의 한식과 가을철의 추석에는 묘소를 방문하여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sup>12)</sup>

재소 한인들의 의례적인 생활의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식이 퍼지게 되었다. 빼오네르, 콤소몰에 가입, 증명서의 획득, 군복무 등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많이 보존되고 있지 못한 의식은 축일이다. 다른 모든 구소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인들은 10월 혁명의 날, 제헌절, 조국전쟁 승리의 날, 5월 1일(노동절), 5월 8일(여성의 날), 2월 23일, 다양한 직업 및 직능별 축일 등을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인들의 삶 속에서 민족전통이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나 한인들의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 기능들이 상실되었고,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족문화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한인들의 언어생활과 언어적 행동의 변화이다. 재소 한인들의 현대어의 언어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는 O. M. Ким, M. A. Хеган, И. С. Югай의 논문과 학위논문에 소개되어 있다(O. M. Ким, 1962: 96-203; 1964; Хеган, 1953; Югай, 1977: 168-174; 1982). 비록 언급된 필자들의 연구대상이 우즈베키스탄 한인들과 인접한 민족농촌과 민족분산도시 그룹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연구결과가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해당 그룹에서도 상당히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언어적 기능 및 언어행동 연구분야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얻어진 연구성과의 보족적 첨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적인 사회언어학자들만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증팔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12) 다음을 참고하라. Юнова(1982: 153-206), Пой(1983: 96-203).



- 1)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이주 시기로부터 한인들의 언어적 행동에 음성학적 어휘, 문법적 수준에서 심대한 영향을 기친 것은 한·러시아어(韓·露語)의 간섭현상이다.
- 2) 60년대로부터 한인들의 확고한 이중언어현상이 나타났다.
- 3) 70년대 도시 한인들 속에서 언어동화의 초기상태가 나타났다. 민족 간 통용언어 중 러시아어는 민족내부 언어로 변해 갔다. 양적인 측면에서 소연방의 모든 민족들의 인종적 현상분석에 근간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원천은 현재의 통계자료가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조사자료이다.

카자흐스탄의 민족적 특성의 변화는 1959년, 1970년, 1979년의 전연방인구조사자료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의 분석은 카자흐스탄 재소 한인들의 현재 인종적 언어과정이 두 가지의 상호연관된 흐름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러시아어의 확산과 모국어의 보존이라는 흐름이 그것이다. 모국어로서 러시아어를 지적하는 사람의 수는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늘어갔다. 1979년 카자흐스탄의 44,651명의 한인들(총인구의 86.5%)은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1959~1979년 중간의 통계기간에는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어(고유어)와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만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 모국어 사용은 단지 구어의 사용으로 귀착되었다. 인구조사는 소연방 민족들의 연령별 혹은 직업별 차별화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필기 형태나 문법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소 한인들이 구세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조사자료는 도시 한인들 사이에서 민족적 언어과정이 러시아어 구사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좀더 활동적인 직업별 생산활동과 사회정치적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분야에서 민족간 통용어로서 러시아어가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모국어를 보존하고 있었던 한인 여성 수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한인 남성보다 평균 3.4% 위였다.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은 모국어를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한민국적 남성과 여성 수에서 차이는 매우 두드러진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5~7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인들간의 인종적 언어과정은 서방 학자들의 특별 연구대상이었다. 하아르만(X. Хаарман)<sup>13)</sup>은 1970년 전연방인구조사자료의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을 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이중언어 병용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Дж. Кинг(하버드 대)가 1986년 9월 타쉬켄트에 머무는 동안 음성학적이고 어휘적인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간섭 현상을 연구하면서 '도시 한인들간의 현지조사'를 실시했었다고 한다(고송무,<sup>14)</sup> 1987: 109-111; 139; 135-136).

비록 개개인의 이름 개명은 언어 분야의 변화와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족적 언어과정은 한인들의 인명 속에 반영되어 있다. 한인들의 인명학의 변화는 명명자뿐만이 아니라 인명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Джарылгасинова, 1970: 169-179; 1978: 203-205; Кинг, 1985: 16-18). 한인들의 전통적 인명방법은 두 가지 기본요소인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인들의 성수는 대단히 한정적이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즉,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а는 180여 개 정도로, В. С. Дош는 153~209개로 추산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성은 김, 이, 박, 최, 전, 안씨 등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성명 재단에서 사회적 구별요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리적 이름(본)이었다. 각각의 성(姓)은 일정한 본(本)의 수를 가지고 있다. 김(金)씨 성은 623, 이(李)씨는 506, 박(朴)씨는 381개의 본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의 지리적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족 혼인그룹인데 그들간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대부분의 재소 한인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나이 많은

13) 스웨덴의 유명한 사회언어학자이자 교수, 다인종 국가에서 미개국어 병용에 관한 15개 이상의 논문 필자.

14) 자신의 저서에서 Дж. Кинг의 원고를 인용하여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룹의 대표자들은 전통적인 이름과 러시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인명법의 새로운 요소는 주로 전통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파생되는 부칭이다. 때때로 부칭은 상응하는 러시아어의 접미사를 한국 이름에 덧붙이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부칭의 존재는 과거 한국인들의 특징적인 두 자리형 인명이나 소연방의 모든 민족의 특이한 세 자리형, 즉 성, 이름, 부칭의 형태로 변해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이주 순간부터 과거 50년 동안 재소 한인들의 민족어의 사회적 기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언어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 양성의 기능이다.

1930년대 중반 무렵 극동지방 한인들의 모국어로 교육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극동지방에서는 여러 등급의 한인학교가 300여 개 생겼으며 2개의 사범학교가 운영되었다. 1931년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 사범대학이 세워지고 한국어과가 극동 국립대학교 동방연구소, 고등 공산주의 농업학교 등에서 개설되었다(김승화, 1960: 207-212).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 후 한인 민족학교들은(많은 다른 '소수민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1938년 1월 24일자 전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 형태의 소련 학교들'로 개편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다.

50년대 말 한인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모국어로서 한국어 교습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한인 분포의 변경과 주 및 구 국민 교육부의 무책임성과 비적극성, 숙련된 인원 즉,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상응하는 교수법을 채택한 교사의 부족,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 및 사전의 부재와 심각한 결핍 등은 1938년 6월 11일자의 "한인 국적 자녀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에 관한" 카자흐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과 카자흐공화국 교육부의 해당 명령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F. 449 Op. 5 D. 348 L. 106). 한국어의 독자적 연구는 학습교재와 사전, 회화집, 참고서의 부재로 어

려움을 겪었다.

재소 한인들의 민족어는 오늘날에도 일정한 문화생활 분야에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알마하타에서는 한국어로 《레닌 기치》(레닌 깃발, 현재 《고려 일보》로 개칭)라는 공화국이 간행하는 신문이 발행되고 있으며, 공화국 음악, 연극, 극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 러시아 방송이 운영되고, 카자흐스탄의 작가동맹 산하의 한인 산문작가와 시인과의 생겼고, 일련의 아마추어 민속악단과 민족극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레닌 기치》신문의 제1호는 1938년 5월 15일에 발간되었으며 1961년에는 공화국간 신문이 되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어로 된 유일한 정기간행물이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sup>15)</sup> 과거 여러 해 동안 《레닌 기치》신문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기초를 더욱 튼튼히 만들었다. 현재 편집국은 작업실, 기계시설과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신문은 최신의 방법인 수입된 일본제 인쇄기술에 사진 정판으로 인쇄되고 있다(《레닌 기치》편집국의 현 문서보관소, 1986. 11).

현재 《레닌 기치》는 1주일에 5번씩, 1회 부수가 9천부씩 발간되고 있다. 조직 구조에 있어 편집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당의 활동, 선전, 공업, 농업, 문화, 문학, 편지투고, 정보부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신문은 타쉬켄트 통신소와 자사 통신원들을 중앙아시아공화국과 카자흐스탄지역에 각각 파견시키고 있다. 편집국 인원은 현재 45~48명 정도로 추정된다.

《레닌 기치》신문의 활동조직은 문제가 없지는 않다. 중요한 문제는 최근 20년간 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다. 예전 신문은 대부분 정기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나이 든 세대였다. 한인들의 상당수가 습관적이거나 가족전통에 따르거나 아니면 상당수의 한인이 살

15) 남사할린에서는 한국어로 된 신문인 《레닌의 길》이 발행되고 있다. 구소련 공산당 사할린 주위원회 기관신문은 많은 부수 판과 1주일에 5회를 발간하는 정기성을 띠고 있으며 1949년부터 한 번 발행에 5,000부씩 발간되고 있다.

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능동적인 구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레닌 기치》 특파원의 호소에 따라 구독을 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구독자수가 《레닌 기치》 실제 독자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중간 및 젊은 연령의 계층이 흥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소 추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닌 기치》 편집국 구조에는 젊은이를 위한 부서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신문 자체에도 특별히 젊은이취향에 맞는 표제가 없어서 젊은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드물게 인쇄되고 있다.

학습교재, 자습서, 회화교재 그리고 사전의 부족이란 조건 속에서 신문은 한 면에 적절한 표제를 만들어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1988년 봄과 여름 《레닌 기치》 신문에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된 한국어 음성학 입문의 세 강좌가 게재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아주 간요하고 유익한 이 출발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레닌 기치》 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며 창조적으로 일하는 근무자들의 양성에 있다. 현재 특파원이나 편집국 위탁요원 중 일부만이 한국어를 쓸 수 있을 뿐이다. 《레닌 기치》 직원들은 작업시간의 상당부분을 번역작업에 할애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인사문제는 때때로 С.М. Киров 카자흐 국립대학 신문방송학과에 한국어를 배우는 작은 학생집단의 양성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레닌 기치》 신문은 재소 한인들의 민족문화 발전과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한인극단과 상연, 공연, 뛰어난 배우들을 다루고 있다. 드물게 한국 시인들의 시가 실린 기사가 인쇄되곤 한다.

《레닌 기치》 신문에 게재된 재소 한인사에 대해 이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주로 이것은 극동에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위해 투쟁했던 알렉산드르 김(스판게비치 Спангевич Ким)과 홍범도와 같은 유명한 한인 공산

주의자이자 국제주의자(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 등의 기념일 날짜와 관련된 수필이 그것이다.

1930~1960년의 한국어는 인쇄언어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타슈켄트, 알마하타 그리고 크릴-오르다의 출판사들이 정치·사회적, 교육·예술적 문헌들을 한국어로 출간시켰다(주로 번역된 러시아와 소비에트 고전들). 현재 한국어로 《소련》과 《소련 여성》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다. 또 북한의 몇몇 신문과 잡지들을 예약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구소련과 북한간에는 지속적인 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알마하타, 타슈켄트와 다른 도시에 있는 ‘우정’ 서점에는 한국어로 된 지리 카탈로그, 아름다운 사진앨범, 예술작품, 안내서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북한 문헌부가 있다.

구소련 한국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1962년 카자흐스탄 한인 작가와 극작가 그리고 시인 분과의 설립이었다. 이 분과는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0년 초 무렵 수십여 명의 필자들과 합쳐졌다. 작가 중에서 한인 독자들에게 유명한 작가는 영성년(Ен Сен Нен), 차장춘(Тхай Дян Чун), 한진(Хан Дин), 김준(Ким Дюн), 김광현(Ким Кван Хен), 무산(Мусан), 명동욱(Мен Дон Ух), 박일(Пах Ир П. А.), 차영(Цай Ен) 등을 들 수 있었다(《카자흐스탄의 작가들》, 1982: 80; 127; 175; 190; 254; 256). 또한 중간 세대의 문학가들인, 남해영(Нам Хай Ен[남철]), 양원식(Ян Вон Сих[Вуенир]), 전장실(Тен Джан Гир), 이전희(Ли Джан Хи) 등의 작품들이 유명하다. 예를 들면 ‘소련 작가’라는 출판사에서 한인을 소재로 한 Ли Дм의 두번째 소설인 《학은 등지를 등지고 있다》(1987, 모스크바)는 극동에서 구소련 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한 한인 국제주의자에 대하여 러시아어로 쓴 한인 작가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Л. Сон, М. Пах, В. Пу의 초기 작품들이 출간되었다(《공간》, 1987). 1988년 “좌주쉬”(Жазуши) 출판사에서는 재소 한인들 삶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9명의 한인 작가들의 중편소설과 동화집이 발간되었다(《행복의 고향》, 1988). 개별적으로 선별된 재소 한인 시인들의 서정시와 시분석

모음집(《소련식으로 웃는 한국 아이》, 1986: 148)을 담은 일련의 책들(김영수, 1986: 110-116; 신윤자: 210-214)이 외국에서 선보인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로 글을 쓰는 산문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62년에 침켄트(Чимкент)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작가 지방협의회에서 소설가 김준은 “한인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흥미로운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화국의 인쇄시설 이용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변화가 없다. 한국어 활자가 부착된 단 하나의 인쇄기만으로도 “한인 문학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올자스 술레이메노프(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의 말은 참으로 옳다(《신세기》, 1988: No. 15. p26). 반면 재소 한인 작가 작품과 구소련 한인 문학회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표준 한국어의 기능을 촉진시킨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크질-오르다로 이전된 한인 극장의 설립이었다. 왜냐하면 이주시 예술단의 일부가 타쉬켄트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1950년 전까지 한인이 주인인 극장이 2개 있었다. 1969년 극단은 알마하타로 이전되었다. 극단의 반세기 역사 동안 200회 이상의 공연과 콘서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극단의 상연 목록 속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한국 고전음악 드라마들이다. 예를 들면, 《춘향전》(춘향 아가씨의 이야기), 《심청전》(심청 아가씨의 이야기), 《양반전》, 《홍부와 놀부》 등이 있다. 차장춘의 《경계》(межа), 《홍범도》, 《38선 이남》 등 현대 재소 한인 극작가들의 희곡들이 성공적으로 극단무대에 올려졌다. 후기 작품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상그트 페체르부르크), 리가와 다른 도시들의 극장에 올려졌다. 소비에트 한인 극작가들은 70여 개 이상의 희곡을 만들었다. М. Горьсий, Н. Погодин, К. Тренев, М. Ауэзов, Г. Мусерпов 그리고 Ч. Айтматов 등 구소련 극작가들의 한국어로 번역된 희곡들이 극장에 올려졌다. 한인 관람객들은 극장에서 러시아의 고전주의 작가들인 Н. В. Гогол, А. Н. Островский와 서구 유럽작가들인 В. Шекспир, Ф. Шиллер, К. Гол

ьдон를 알게 되었다.

극장 관계자들로 카자흐공화국 인민 배우인 이함적(Ли Хам Дех), 김진(Ким Дин), 카자흐공화국 공로 배우인 이길수(Ли Гир Су), 최봉도(Пой Пон До), 박춘섭(Пах Чун Себ), 이영수(Ли Ен Су), 김호남(Ким Хо Нам), В. А. Ки м, М. Р. Ли, 우즈베크공화국 공로 여배우인 이경희(Ли Ген Хи) 등의 무대에 술 거장들이 일해 왔고, 일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극장에서는 카자흐공화국 공로예술인인 태장춘(Тхяй Дян Чун), 차영(Пай Ен), 영성년(Ен Сен Не н), Г. М. Кан 등이 일해 왔다. 긴 세월 동안 극장을 이끌어 온 사람은 재 정구(Те Ден Гу)였다(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중앙문서보관소: F. 2046 Op. 1 D. 22 L. 1~48).

1970년 한인 관객의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은 “아리랑” 경연극 안 무 앙상블이 극장 산하에 조직되었다. 앙상블은 한국어로 된 민요와 현대 노래를 3개의 레코드에 녹음했다.

극단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다른 중앙아시아공화국의 주들을 돌며 매년 긴 순회공연을 가졌다. 극단은 모스크바와 자카프카즈 공화국, 사할린 등지의 관객들에게 한인 무대예술을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100년간 한인 관객들에게서 민족극단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극단 관계자들은 다시금 한인 관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모으기 위해 중대하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비록 극단의 뛰어난 배우, 상연, 순회공연에 관한 기사들과 예술가들의 기사와 수필이 공화국 정기간행물에 꾸준히 게재되긴 했지만 한인 프로 극단의 역사와 한인극단에 관한 논문은 극작가이자 감독인 김(И. Ки м)의 책에 실려 있는 것이 유일하다(1982). 한인극단에 관한 몇 가지 이야 기들은 안내서와 백과사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일련의 책들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Канапиц, 1958: 154-158; 1964: 192-193; 1970: 237-238).

프로화된 한인극단 외에도 재소 한인들의 음악, 안무, 노래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은 타쉬켄트와 남사할린의 프로앙상블이다. 한인들의 밀집 분포지역에서는 탈퇴-쿠르간다시 문화회관의 《아침노을》과 국민 앙상



블, 카라탈지역의 우쉬토베 국영농장의 인민회극극단과 같은 예술아마추어 집단과 인민극단이 활동했다(우즈베크공화국의 타쉬겐트 주 중앙 치르친 지방의 사회주의 노동영웅을 두 번이나 받은 김평화 집단농장 인민극단, 타쉬겐트 주 집단농장의 《청춘》과 《가야금》 민속 앙상블 등이 있다).

민족의 정신문화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한인 민요는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연구대상이 되었다.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아시아 제민족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인 В. Пак는 후에 알마하타, 크질-오르다 주에서 1962년에 야외탐사를 실시하여 100여 개 이상의 민담을 모으고 편집했다(Пак, 1966).

금언학(金言學) 분야에서 한국 민속연구는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 임수(Лим Су)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격언들을 수집, 분류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3,000개 이상의 속담, 민족적 특징, 믿음, 의학적 조언, 수수께끼, 농업 및 생활의 관찰과 추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음집을 발간했다. 모음집 서두에서 임수는 재소 한인 민간격언들의 역사적 뿌리를 고찰하여 분류기준을 정하고 재소 한인들의 금언을 러시아어로 적절히 번역하는 데에서 어려운 점들을 규명했다(임수, 1982).

각 민족들의 정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음악, 노래, 민요이다. 재소 한인들은 생활 풍습에 지난 세기의 풍부한 유산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 정신, 사회생활로 기인된 정치·경제·사회·문화개혁을 반영하는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었다.

재소 한인들의 생활 터전에서는 노동가요, 서정가요, 생활가요, 의식가요, 역사가요로 분류되는 많은 옛 노래들이 보존되어 있었다(천추, 1978). 재소 한인들의 노래 작품은 오래 전에 형성된 노래하는 전통의 기반 위에서 생겨났고 형성되어 왔다. 소비에트 정권 초창기 극동에서는 “술바트르칸 빨치산 부대의 행진”, “모두 전선으로” 등의 한인 빨치산 부대의 노래가 생겨났다. 20~30년대 한인들의 노래민요는 러시아 민요의 영향 아래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르인 유행가(그 시대 생활에서 취재한 결혼식 노래)들이 생겨났다(천추, 1976: 61-68). 40~50년대 한인

아마추어 및 프로 작곡가들은 조국과 고향 그리고 노동에 대한 노래들을 작곡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노래, 민요는 가장 인기있는 노래 몇 곡들을 아는 데에 불과하지만 나이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불려졌다.

민족간의 교제, 다민족 노동집단 속에서 국제적인 생활태도 형성, 카자흐스탄 한인들 사이에서 민족간 결혼 등은 특별히 과학적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재의 거주지 배치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는 한인들의 밀집중심지가 무엇보다도 공화국에서 대도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집중화는 다른 사회적 결과를 제외하고라도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민족간 의사소통을 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회사와 관청들의 압도적 다수가 다민족 노동집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다민족 집단들 속에서 구체적인 다른 국적자에 대한 우호적 감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각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다.

노동활동 과정 속에 집중적인 민족간의 교제는 민족적 타성을 개선하고, 민족적 편견을 타파하며 그 후 가족생활 분야에서 일과 후 개인적 교제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증거로는 카자흐스탄 한인들간의 민족간 결혼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30~40년대 민족간 결혼이 이색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오늘날 민족간 결혼은 재소 한인들의 인종적 발전의 본질적인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족간 결혼의 확산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사회통계학적 요소들이다. 만일 사회정치시스템이 사실상 모든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민족간 교제과정은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민족간 결혼의 증가하는 추세는 불가피한 것이다(Ганцхая, 1977).

사회·경제·문화생활의 전분야에 걸친 국제화로 모든 민족, 국민 그리고 인종집단의 대표자들의 국가정치 활동의 능동적 참여 또한 늘어나

고 있다. 국민들이 대의원으로 선출한 카자흐스탄의 많은 한인들은 지방 권력기관인 주, 도시, 구, 촌락 소비에트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한인들은 또한 카자흐공화국 최고회의 의원들이기도 하다. 소연방 최고 의원에 2번이나 선출된 사람들은 카라탈지역 “레닌의 길” 집단농장장인 О. Тяп (1958; 1962)와 카라탈지역 “우쉬토베” 국영농장 출신의 А. С. Ким였다. 많은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정부내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구소련 관청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50년간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체적으로 재소 한인, 특히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사회문화적·민족적 발전 연구에서 절대적인 성공과 보탬이 되었다. 현대 세계에서 여러 사회적 관점에서 본 향후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즉 재소 한인들의 역사·문화·언어의 집중적인 연구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통계학, 민속학, 민족적 사회학, 민족언어학, 사학은 바로 역사학의 통합의 기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참여없이는 과거의 객관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일시적인 사회문화 과정의 연구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공화국들, 무엇보다도 우즈베크공화국의 한인들 중에서 사회학자들의 연구활동의 부재를 유감스럽게 확인해야만 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여러 공화국에서는 대규모 민족사회학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일종의 유사한 연구들의 실시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인 몇 논문에 통합되었다(《사회 및 민족 제연구》, 1972;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의 사회학 논문집》, 1979; Арутюнян, 1984; 1986).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 사람들의 인종적·사회학적 연구는, 필자가 보기에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응용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당면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의 생활 활동 속에서 사회학적이고 민족적인 측면 연구의 여백을 없애버리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민족간 관계의 한층 더 높은 완성과 구소련 사회의 국제화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19차 전연방 전당대회에서 М. С. Го

рбачев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족간 관계의 빠른 안정화에 찬성하면서 우리는 구소련의 구성국가들의 발전과 국제관계, 우리 민족의 형제애, 이 모든 것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은 공화국과 연방기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들과 관련있는 문제들은 모든 소련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여러 민족들의 의지와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 (《프라우다》, 1988년 6월 29일자).

---

참고문헌

강주홍

1954, 감자 및 채소의 높은 수확 생산에 대한 우리의 경험, 알마하타.

고송무

1987,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서의 한인들》, 헬싱키.

김삼만(Ким, Сам Ман)

1943, 《나의 쌀의 높은 수확량 취득의 경험》, 알마하타.

김승화(Ким, Сын Хва)

196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러시아 극동지방의 한인 농민: 아프토레 프지스  
……”, 《역사학 칸지다트》, 알마하타.

1965, 《재소 한인 통사(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хорецев)》, 알마하타.

김영수

1986, 《소련과 한국 문자》, 서울.

서지숙(편)

1987, 《소련에서의 한인들》, 호놀룰루.

신윤자

《소련의 고려 사람들》, 서울.

1988, 《재소 한인들》, 서울.

임수(Лим Су)

1982, 《한인 민간 격언집 / 한국어, 러시아어판》, 모스크바.

천추(Тен Су)

1976, “재소 한인들의 노래 문화”, 《카자흐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Izv. 시리즈》 2.

1978, “재소 한인들의 노래 문화”, 《예술학 칸지다트 학위 논문 개요》, 레닌그  
라드.

Cooh, Alvin D.

1968, "L'affaire Liushkov", 《소비에트 연구》 5 (19).

Wada, Haruki

1987, "소비에트 극동에서의 한인들, 1917~1937", 《소련에서의 한인들》, 호놀룰루.

Аносов, С. Д.

1960, 《우크소치; 볼로딘 V. I.》.

1928, 《우수리지역의 한인들》, 블라디보스톡.

Арсеньев, В. К. and Титов, Е. И.

1928, 《극동지방 채민족의 생활습관과 그 성격》,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Арутюнян, Ю. В.

1984, 《민속사회학: 목적, 방법 그리고 몇 개의 결과》, 모스크바.

1986, 《소련 채민족의 사회 문화적 현상(민속 사회적 연구자료에 따른)》, 모스크바.

Арутюнян, Ю. В., Дробизева П. М. and Кондратьев В. С.

《인종적 사회학: 목적, 방법 그리고 몇 연구 결과》, 모스크바.

Асыпбеков, М. Х., Нурмухамедов, С. Б. and Пан, Н. Г.

1976, 《카자흐스탄의 노동자 계급 산업 요원의 증가》, 알마하타.

Бабичев, И. И.

1959, 《극동지방 내전에 중국 및 한인 근로자들의 참전》, 타슈켄트.

Базанова, Ф. Н.

1987, 《카자흐공화국 주민 구조의 형성과 발전(민족적 측면)》, 알마하타.

Бромлей, Ю. В.

1987, 《민속 사회학의 과정: 이론, 역사, 현대성》, 모스크바.

Бротлей, Ю. В.

1983, 《민속 이론 논문서》, 모스크바.

Брух, С. И.

1986, 《세계 인구: 인종사회 통계 안내서》, 모스크바.

Галев, А. В.

1978, “카자흐공화국 인종사회 통계학적 특징: (1926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보고 (Izv.), 《카자흐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학술지》 4.

Ганцкая, О. А.

1977, “혼인 가족관계 민족사회학 발전의 전반적인 경향”, 《현대 민족학 과정》, 모스크바.

Григорьевич, С. С.

1958, “러시아 극동지방 한인들의 대 일본 민족해방 투쟁에 참가”, 《역사학의 제 문제》 10.

ДМ, ДИ

1987, 《학은 등지를 날고 있다》, 모스크바.

Джарылгалсинова, Р. Ш.

1970, 《인명학의 제문제》, 모스크바.

1978, “우즈베크공화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명의 특징”, 《중앙아시아의 고유 명사론》, 모스크바.

1980,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인종적 과정의 주요 쟁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민족그룹이 가지고 있는 인종 과정》, 모스크바.

Дой, В.

1961, “카자흐스탄의 쌀에 넓은 길”, 《카자흐스탄 농업》 3.

Егизарян, А. М.

1965, 《소련방 민족 구성 발전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예레반.

Захир, Али

1931, “극동지방 한인들 사이의 집단농장 운동에서 레닌의 민족정책을 위하여”, 《혁명과 제민족성》 2-3.

Юнова, Ю. В.

1982, 《한국의 의식, 관습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 시리즈(19세기 중엽~20세기 초), 모스크바.

Канапиц, Л. И.

1958, 《카자흐스탄의 예술》, 알마하타.

1964, 《극장: 백과사전》, 모스크바.

1970, 《소연방의 음악 생활, 안내서(편람)》, 모스크바.

Ким, Г. Н.

1987, “카자흐스탄의 한인 정신문화 역사 편찬”, 《카자흐스탄의 문화사와 문화사 편찬의 제문제》, 알마하타.

Ким, И.

1982, 《소련의 한인 극장》, 알마하타.

Ким, М. Т.

1979, 《극동지역 소비에트 권력투쟁 속의 한국 국제주의자들》, 모스크바.

Ким, О. М.

1962, “소연방 한인들의 언어에 관하여”, 《테사쿠 학술 잡지》 202.

1964, “우즈베크공화국 한인들의 러시아어의 특성(음성, 형태적 논문)”, 《인문학 칸지다트 학위 논문 개요》, 타슈켄트.

Ким, Н. П.

1970, “1937~1947 사이의 한인 집단농장의 조직 및 경영 강화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활동”, 《역사학 칸지다트 논문 개요》, 타슈켄트.

1971, “카라칼박 자치공화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제 건설(1937~1939)”, 《우즈베크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카라칼박 지부 통보(通報)》 4.

Козлов В. И.

1982, 《소연방 제민족(인종사회 개론서)》, 모스크바.

Колодин, Ф. И.

1971, 《카자흐스탄에서의 사회주의 농업 개혁에 대한 레닌 계획의 승리》, 알마하타.

Лышхов, G. S.

1939a, “Kyokuto sekigun ron(극동의 붉은 부대)”, 《카이조》 N. 9.

1939b, “Soren Shkaishugi hinan(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비평함)”, *Gekkan Roshia* 5.

Нусупбеков, А. Н.

1966, 《카자흐스탄의 소련 노동자 계급 형성과 발전》, 알마하타.



Пах, В.

1966, 《한국 전래 동화》, 모스크바.

Пах, Н.

1950, 《아반가르드(전위) 집단농장》, 모스크바.

Песоцкий, В. Д.

1913, “아무르 강변의 한인 문제”, 《아무르 탐험 작업》, 하바로브스크.

Пи, Тен Хо

1974, 《파흐티-아랄》, 알마하타.

Плагоуов, Н. И.

1976, 《소련 이주 정책과 그 실행(1917~1941)》, 톰스크.

Реннер Т. М.

1981, “카자흐스탄의 농촌 주민의 이주 특성”, 《재생산의 문제와 주민 이주》, 모스크바.

Рязанов А.

1905, “국내의 한인 이주의 짧은 수필”, 《군 전집》 No. 5.

Савосъхо, В. К. and Шамагов, И. Ш.

1974, 《카자흐스탄에서 집단농장 건설(1946~1970)》, 알마하타.

Сусхолов, А. А.

1986, “민족간 혼혈 가족”, 《소련 민족의 사회 문화적 성격(인종사회주의적 연구자료에 따라)》, 모스크바.

Тупепбаев, Б. А.

1984,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사회주의 농업 개혁》, 모스크바.

Хан, Б. И.

“한인 교육의 교육학적 측면(예를 들면 카자흐공화국)”, 《교육학》.

Хан А.

1959, “카라탈 지방의 파”, 《카자흐스탄에서의 농업》 No. 7.

Хан, С. А.

1958, “러시아의 극동지방 내전에 한인 노동자의 참여(1919~1922)”, 《한국: 역사와 경제》, 모스크바.

Хан, П. С.

1957, 감자 및 채소재배에 대한 우리의 경험, 알마하타.

Хасхина, С. III.

1960,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의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관한 제 문서들”, 《러시아 연방 국가 고문헌 중앙 보관소(극동)》 1권, 톰스크.

Хван, С. Г.

1956, 《어떻게 우리는 높은 면화 수확을 거두고 있는가(공산주의로 가는 길)》, 알마하타.

Хеган, М. А.

1953, “러시아에서 한국어 번역에서의 어휘 차용”, 《인문학 칸지다트 학위논문 개요》, 모스크바.

Югай, И. С.

1977, “우즈베크공화국의 한인들간의 언어과정의 민속학적 연구”, 《민속학 연구소의 야외연구》, 모스크바.

1982, “타민족 환경 속에 현대 민속 언어학 과정의 발전”, 《역사학 칸지다트 학위 논문 개요》, 모스크바.

Пой, В. С.

1983, “카자흐스탄의 한인 가정의 의식 연구”, 《소련 민속학》 No. 3.

1985,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현대 물질문화와 생활양식(전통과 상관관계 문제)”, 《역사학 칸지다트 논문의 개요》, 타쉬켄트.

《공간(Простор)》 지.

《논거와 사실(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지.

《레닌 기치》 편집국의 현 문서보관소.

《레닌 세대(Ленинская)》 지.

《신세기(노보예 브레мя, новое время)》 지.

알마하타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침첸트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탈딕-쿠르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카라간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카자흐공화국 국가고문헌보관소.

《카자흐시카야 프라우다(Казахская правда)》지.

크즐-오르다 주 국가고문헌보관소.

《프라우다(Правда)》지.

《프로인드쉬프트(Фройндшафт)》지.

1955, “공화국 면화 재배의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농업》  
No. 1.

1968, 《소련 영웅: 카자흐인》, 카자흐스탄: 알마하타.

1970, 《사회주의 노동영웅: 카자흐스탄인》 2·4권, 알마하타.

1972, 《사회 및 민족 제연구: 타타르 자치공화국 자료에 따른 민속사회학연구  
경험》, 모스크바.

1979,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의 사회학 논문집》, 탈린.

1982, 《카자흐스탄의 작가들》, 알마하타.

1986, 《소련식으로 웃는 한국 아이》, 서울.

1988, 《행복의 고향》, 알마하타.

1989, 《민속사회학적 생활양식의 경험(몰도바공화국 자료에 따른)》, 모스크바.